

# 전남 관용차, 전기차로 바꾼다

道·시·군 200대 구입 업무용 차량 활용

영광 37대 최다…전기차 거점도시 선점

남새와 소을 없이 전기로만 움직이는 승용차 200대가 정식 번호판을 달고 전남도 곳곳을 누빌 전망이다.

전남도는 8일 도내 22개 시·군에 서 모두 200대의 고속·저속 전기차를 구입,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하기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실용화를 통해 선도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세계적인 전기차 등자(EV-Electric Vehicle)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에 제출한 '전기차 보급

계획'에 따라 올 해 전남 전역을 누빌 전기차는 모두 68대로, 저속 전기차(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49대와 고속(Full Speed·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차 12대다.

국내 '전기차 거점 도시' 선정을 노리는 영광이 가장 많은 37대(저속 5대)를 주가로 보급해 슬로시티·증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도 고속 전기차(6000만원)의 경우 1500만 원, 저속전기차(2500만~3000만 원)는 75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인프라 구축(8000만 원)에 따른 예산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전기차 운행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도내 22

개 시·군 지방도 45개 노선 2296 km와 시군도 6466개 노선 5592km를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도로로 지정하고 442개 노선 1434개소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여기에 CT&T와 쿠AD모터스 등 전기차 전문기업, 전기차 연구개발·제조업체인 유에코네스 등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생산 기반이 구축된 만큼 이번 전기차 대량 보급을 통해 세계적 전기차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달 20일께 영광이 환경부의 '전기차 거점도시'로 선정되면 전남이 명실상부한 전기차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개 시·군 지방도 45개 노선 2296 km와 시군도 6466개 노선 5592km를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도로로 지정하고 442개 노선 1434개소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여기에 CT&T와 쿠AD모터스 등 전기차 전문기업, 전기차 연구개발·제조업체인 유에코네스 등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생산 기반이 구축된 만큼 이번 전기차 대량 보급을 통해 세계적 전기차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달 20일께 영광이 환경부의 '전기차 거점도시'로 선정되면 전남이 명실상부한 전기차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통합방위 지방회의'

김운태 광주시장이 9일 시청에서 열린 '2011 통합방위 지방회의'에 참석,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獨 라이프치히시 우호교류협약

광주시 사업·정책 추진

### 조정·중재 역할 기대

광주시가 시민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민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를 조정·중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 코디네이터 양성

시민 코디네이터 양성